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8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정 소 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정 소 희

인 준 서

정소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한 지수 (인)

심 사 위 원 강 현진 (인)

심 사 위 원 김 경 희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 문 개 요

현대인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미의 기준이 획일화 되고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외모와 끊임없이 비교한다. 현대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고 우월한 외모를 형성하기 위해 패션, 미용, 운동 등에 투자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수연, 2014).

본 연구는 20~50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설문내용을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23개의 응답 중 응답자의 연령별 비율과 불성실한 응답 설문 등 85개의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 분석에 438개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 기법으로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요인은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인식,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은 의복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 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관리행동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관심이 많고 더욱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관리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의복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20~50대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태도는 현대사회의 여성들에게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 론 ····· 1

Ⅱ. 이론적 배경 ····· 4
1. 사회문화적 태도 ····· 4
2. 자아존중감 ····· 10
3. 외모관리행동 ····· 17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24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 24
2. 측정도구의 구성 ····· 25
3. 자료분석 ····· 27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29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9
2.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 31
3.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 ····· 38
4.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39
5.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 45

Ⅴ. 결론 ····· 5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9
<표 2>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15
<표 3>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22
<표 4>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 24
<표 5> 설문지 구성 ····· 27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포 ····· 30
<표 7>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분석 ····· 33
<표 8>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 ····· 35
<표 9>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 37
<표 10>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39
<표 11>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40
<표 12>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42
<표 13>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45
<표 14>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의복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 46
<표 15>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화장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 47
<표 16>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피부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 48
<표 17>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체중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 49

Ⅰ. 서 론

오늘날 대중매체 속 연예인들은 작은 얼굴과 완벽한 몸매를 자랑한다. 뉴스, 시사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여성들 또한 외모가 뛰어나다. 이러한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정해놓은 미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왔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외모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외모의 중요성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 전달되고 있으며 사회의 이상적 메시지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하고 이러한 이상적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와의 불일치를 극복하거나 내면화된 미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박광희, 2012).

2015년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 정도가 '우리 인생에서 외모는 중요하다'고 하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3%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다(한국갤럽,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56. 검색일: 2018. 4. 12.). 또한 '아름다운 외모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 93%이상이 외모가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85%가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답하였다(남녀 93% "아름다운 외모는 사회생활에 긍정적", 뉴스와이어, 2014. 9. 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4317. 검색일: 2018. 4. 12.).

이렇듯 외모가 개인의 사회경쟁력이라는 인식변화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김윤, 황선진, 2008). 또한 외모관리방법은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외모관리는 사람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황윤정, 2007; 김지향, 2012).

오늘날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상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상적 외모의 기준이 결정되며, 개인의 외적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선희, 2003).

또한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 타인들과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습득한다. 그리고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이상적인 외모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긍정적인 외모변화는 자기 신체의 매력을 증가시키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고 호감을 주며 자아존중감 향상 등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황윤정, 2007; 강평미, 2016).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 외모관리 등 여러 변인들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여성의 외모가 사회문화적 요인 중 미디어, 대인, 사회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오현숙(2015)은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 보다 또래집단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신체 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미디어가 여성의 신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50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문화적 요인 중 미디어 영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연구로 김선희(2003). 이상선, 오경자(2003), 사회문화적 태도와 얼굴관리행동 연구의 황윤정, 유태순(2008),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 연구의 문혜경, 유태순(2003), 김태미(2010) 등이 있다. 그리고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관계의 서은혜(2012), 외모관리행동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를 연구한 장혜선(2014) 등이 있다.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지만 위의 변인들을 함께 연구하며 자아존중감을 요인별로 분석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각 변인들의 관계를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20~50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을 증진시키고 우리사회의 행복지수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알아본다.

셋째,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영향관계를 알아본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태도

1) 개념

사회문화적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가 높은 문화 수준에 있는, 또는 그런 것(다음 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601793&supid=kku010464767. 검색일: 2018. 3. 15.)이고 태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다음 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68776&supid=kku000343011. 검색일: 2018. 3. 15.)이며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형성이 되면 변화되기 어려우며 지속성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임숙자, 이종남, 이승희, 양윤, 황선진, 2002, p.118).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조직화된 집단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상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반 우호적인 감정을 수반한 입장이나 자세를 사회문화적 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Heinberg, Thompson, Stormer(1995)에 의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이 척도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인지하는 인식 차원과,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수용하고 사용하는 내면화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김해선, 2017, p.8, 재인용).

역사적으로는 미술, 음악 등 예술작품이 여성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되

었지만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외모에 대한 기준이 획일화 되었다. 매스미디어는 획일화된 외모기준으로 사람들의 외모를 비교하도록 촉진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고(Heinberg 등, 1995, p.82)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획일화시킴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김선희, 2003, p.99).

이와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의 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매스미디어는 시각적으로 이상적 외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미적추구행위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 하였다(황윤정, 유태순, 2010, p.1924).

현대 사회는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대중들은 이를 통해 제시되는 이상적 외모를 객관적인 미적 기준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적 외모 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로 정의 될 수 있다(양유나, 2016, p.4).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인터넷,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수용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현대 사회는 외모의 기준이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변하고 대중의 관심은 외모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태도 연구는 신체이미지, 의복행동, 섭식행동 등 외모와 관련된 변인들에서부터 미디어 관심, 삶의 질과 같은 사회적 영향, 심리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양유나, 2016).

Heinberg 등(1995)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성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들의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수용정도와 인식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SATAQ(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고 Heinberg 등(1995)의 연구와 관련하여 이상선, 오경자(2003)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척도인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황윤정(2007)은 SATAQ 척도를 이용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대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얼굴관리행동이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인식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생활을 통해 자신의 얼굴관리에 신경 쓰며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광희(2012), 이민지, 정성지, 안미선(2015)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민지, 정성지, 안미선(2015)은 외모관리행동이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태도가 콤플렉스와 얼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가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콤플렉스가 적고 인식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에 의해 느끼는 콤플렉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얼굴만족도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높을수록 얼굴만족도가 높고, 인식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박광희(2012)의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가운데 인식의 경우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복선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면화의 경우 체형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메이크업, 의복선택의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 메이크업과 피부관리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요인과 인식요인 모두 높게 나타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사회기준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김선희, 2003).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복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수술, 약물을 이용한 다이어트 등 자극적인 외모관리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김수현(2013)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미용성형 수술 및 시술 경험과의 관련성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만족도, 미용성형 수술, 시술 경험 유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성형 수술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하여 사회문화적 태도 중 모바일에 대한 수용 태도가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연구는 주로 섭식태도와 관련되어 이루어 졌는데 황윤정, 유태순(2010)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 중 내면화는 부적절한 섭식행동, 약물 사용 등 부정적 체중관리행동과 식사량 조절, 운동 등의 긍정적 체중관리행동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자신에게 내면화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상 섭식행동의 가능성이 커지며 내면화를 많이 할수록 절식을 많이 하고 음식에 대한 몰두를 많이 하는 섭식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여자청소년의 섭식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최진주, 2013).

최근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여성들이 주도하던

외모관련 시장에 남성들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외모를 관리하고 치장하는 것은 지극히 여성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고정 관념이 무너지고 외모관리란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표현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홍금희; 2008, 이미숙; 2014). 따라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적 태도 관련 연구도 증가 하고 있다.

남자 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대중매체노출도의 영향에 관한 홍금희(2008)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은 대중매체 노출도가 높을수록 내면화가 높아지며 대중매체의 이상적 신체 이미지인 마르고 날씬한 외모의 압력을 받고 자아효능감이 대중매체노출도와 상호작용하여 외모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숙(2014)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 남성 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구매행동 및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는데 중년 남성들도 비교적 현대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수용하고 내면화 하였지만 인식에 비해 낮은 내면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인식 정도에 따라 의복구매행동과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났다. 특히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는 헤어관리의도, 외모변형의도, 피부관리의도, 체형관리의도, 의복관리의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박혜정(2013)은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외모비교, 미디어 관심도가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신체적 외모 비교와 미디어 관심도가 높을수록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타인과 자신의 신체적 외모 비교를 많이 할수록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사회문화적 미의 기준을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고 외모

비교를 많이 하여 미디어에 관심도가 높을수록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인지하여 신체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으며 개인은 외모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메시지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심리적 변인이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연구자(년도)	연구 내용	하위요인
Heinberg, Thompson, Stormer(199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는 SATAQ를 개발	내면화,인식
이상선, 오경자(2003)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타당화 자료 제시	내면화,인식
김선희(2003)	20대 여성 소비자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연구	매스미디어 내면화, 사회적 인식
황윤정(2007)	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면화,인식
홍금희(2008)	남자 대학생의 대중매체의 노출정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면화, 인식
황윤정, 유태순(2010)	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체중관리 및 의복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면화, 인식
박광희(2012)	여성의 인지연령,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관계 연구	내면화,인식

김수현(2013)	여성들의 대중매체를 통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미용성형 수술 및 시술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모바일, 내면화, 광고, 사회적 인식
최진주(2013)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존중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면화, 인식
이지영, 박혜정(2013)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외모비교, 미디어 관심이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 태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면화, 인식
이미숙(2014)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모중요성 인식, 내면화, 날씬함 중요성 인식
이민지, 정성지, 안미선(2015)	20~30대 여성의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의 관심도, 관리행동, 콤플렉스, 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면화,인식

2. 자아존중감

1) 개념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William James(1890)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그는 자아개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관찰과 인지를 하는 주체적 자아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경험적 자아로 분류하였다. 또한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을 자기가치감으로 정의하였다(네이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8343&cid=40942&categoryId=31531. 검색일: 2018. 3. 20.).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 감정 및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아지각, 자아평가, 자기효능감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한미정, 2001, p.35).

그 외에도 자아형상, 자아존중, 자아관, 자기사랑, 자기존경 자기수용, 자기평가, 자기가치,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아유능감 등의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이주미, 2017, p.24).

상담심리 용어사전에는 자신을 수용하고 적어도 어느 면에서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으며 자아긍정과 비슷한 개념이라 정의하였고(김상인, 2000, p.147) 자신의 약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서 수용할 줄 알고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임효정, 2014, p.28).

교육심리학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있다고 평가한 부분이며 자아개념이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라고 하였다(김진환, 2000).

또한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정태연, 1999, p.146).

이상으로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이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며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며(조선영, 2014) 다양한 변인들과의 영향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봉현(2009)은 고등학생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타인은 일반적으로 동료 급우나 또래집단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은 부모보다 훨씬 크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장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체중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김아날리아, 2006).

남녀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황윤정(2007)은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체중관리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며 얼굴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의복관리행동, 긍정적 체중관리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학생의 성별의 차이는 없다고 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에 대한 만족이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금희(2007)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황윤정(2007)은 신체외모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신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신체매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신체매력 지각이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한 안희진(2011)의 연구와 부분 불일치하였다.

중년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김나미, 정성지, 김동건(2015)은 중년소비자의 주관적 연령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연

령 차이에 따라 집단 간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아존중감은 연소화 집단과 실제연령집단이 연로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중년 소비자는 주관적 연령을 실제연령으로 지각하거나 실제연령보다 젊게 지각하는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혜란(2006)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이 헤어스타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신체가 마를수록 헤어스타일 만족도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과체중일수록 불만족 한다고 하였다.

강영숙, 박현정(2009)은 20대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만족은 헤어·피부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비하는 헤어·피부관리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만족 성향이 높을수록 헤어·피부관리행동을 많이 하고 자기비하 성향이 높을수록 헤어·피부관리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혜란(200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20~50대 성인남녀의 자아존중감이 피부관리행동, 의복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강평미(2016)는 자아존중감이 피부관리행동, 의복행동, 체형관리행동에는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에 만족한 경우 체형관리를 하지 않고 피부관리와 의복착용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헤어관리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김혜란(2006)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체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강평미(2016)의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체형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강영숙, 박현정(2009)의 연구와 불일치하였으며 이는 20대가 몸매와 몸무게에 관련된 체형보다는 헤어, 피부, 얼굴에 관련된 외모의 영향력이 자아존중감과 더 밀접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성형수술과의 관계를 연구한 최미혜(2010)는 성형 수술을 한 남성이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형수술을 한 남성은 자신에 대한 신체 이미지의 평가 기준을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하여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낮게 평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춘기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수경(2007)은 자아존중감이 의복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높다거나 낮다고 해서 의복을 통해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인정을 얻어 신체불만을 보완하려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만족이 높다고 한 허정화(2016)의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허정화(2016)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복스타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입은 옷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선택하고 소유한 의복에 만족하며 자신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안미나(2016)는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며 업무 미팅, 프레젠테이션, 결혼식 등 개인적 또는 업무적인 특별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의복을 착용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업무적으로 프로페셔널해 보이기 위하여 외모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여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태도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며 만족도가 높고 이상이 높아 유행을 선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자기수용 정도가 높아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의복실험을 통한 흥미성이 높다고 해석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강한 여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행하는 의복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착용하여 자기다움을 표출한다고 하였다(문혜경, 유태순, 2003).

송은영(2009)은 자아존중감 변인을 이용한 얼굴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외적 얼굴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모관리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외적 이미지가 향상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반면, 남성은 외적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여성에 비해 낮은 편으로 외적 이미지 관리만으로 자아존중감의 향상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내적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에서는 남성에게도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를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2>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연구자(년도)	연구 내용	하위요인
이수경(2003)	사춘기 여학생의 신체성장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
문혜경, 유태순(2003)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자아존중감
김아날리아 (2006)	프리틴 세대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요인 연구	일반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사회 자아존중감
김혜란(2006)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황윤정(2007)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
정봉현(2009)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강영숙, 박현정(2009)	20대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신체이미지의 영향 관계 연구	자기만족, 자기비하
송은영(2009)	얼굴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안희진(2011)	향장미용학 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 신체매력지각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
김나미, 정성지, 김동건(2015)	중년소비자의 주관적 연령 차이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 및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
강평미(2016)	20~50대 성인남녀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
허정화(2016)	중년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
안미나(2016)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3. 외모관리행동

1) 개념

외모의 사전적 의미는 겉에 나타난 모습이나 용모 및 겉모습(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8336500, 검색일: 2018. 3. 20.)으로 얼굴 모습, 옷, 체격, 분위기 등을 포함하며 외모는 자기 개념의 형성과 표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접점이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경호, 2015, p.87).

외모관리는 사회적 상황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보여주는 과정이며(임숙자 등, 2002, pp.198~199) 의복, 메이크업,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관리, 성형행동과 소품 등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외모를 타인에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이현옥, 구양숙, 2015, p.121).

이와 같이 외모관리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등을 사용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외모관리행동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며(김성남, 이경숙, 2007, pp.30~31)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모를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아름다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주관적, 객관적인 행동이다(이유종, 2010, p.14).

또한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는 신체적 특성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어 내면화시켜 나가는 행동이다(설현진, 2010, p.24).

외모관리행동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외모를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이며(전종국, 2008, p.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미의 기준으로 변화시키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강평미, 2017, p.7).

2) 선행연구

현대는 생활수준의 향상,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노출의 증가로 인해 외모에 대한 정보들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고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모가 대인활동과 연애관계, 취업 등의 사회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역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외모관리행동의 유용성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김해선; 2017, 이현옥, 구양숙; 2017).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연구한 김혜균(2013)은 남성들이 외모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을 취업이나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직장인의 외모관리행동 특징은 단순히 치장이나 꾸밈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안팎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호감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유희(2017)의 연구에서 설명하여 김혜균(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유희(2017)는 직업 특성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직업유형은 경

영, 금융, 영업, 판매직, 예술, 디자인 등 이며 산업기술, 정보통신직, 법률, 공공서비스직은 외모관리행동을 가장 덜 하는 직업이라고 하였다.

특히 20~30대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외모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패션과 피부 및 화장품에 관련된 외모관리행동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박수진(2006)은 설명하였는데 남성이 피부관리와 헤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 김혜균(20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해선(2017)은 외모관리행동이 외모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외모의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적 외모관리행동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관리 행동을 통해 높아진 만족도와 관리행동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현옥, 구양숙(2014)은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 분석을 통해 외모관심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높은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대생일수록 이상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의 일반적인 외모관리행동 경향을 분석한 김은주(2001), 정지영, 신혜원(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김은주(2001)는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시도하고 신체에 불만족 할수록 체중조절을 많이 하며 화장은 신체에 만족할수록 외모관리 경험이 많다고 하였다. 정지영, 신혜원(2006)의 연구에서도 여학생 중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외모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의복추구혜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임은진, 하준호, 이계정(2017)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외모관리행동은 보통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대학생들은 신체이미지에 대해 불만족하지만 외모관리행동에는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선희(2003)는 20대 여성은 체중조절행동이 가장 보편적인 외모관리행동이라고 하였고 화장, 염색, 전문피부관리, 미용성형수술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소비자들은 다양한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경험한다고 하였다.

20~30대 직장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화장품 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순희, 김은실, 주영주(2017)는 직장여성들은 직업적 특성에 맞는 이미지가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고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경쟁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과 유행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지속적인 외모관리를 위해 효능과 실용성을 고려해 구매한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희자(2016)의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을 외모장식, 피부관리, 체형관리, 성형수술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연령별로 생애 첫 외모에 관심을 갖는 시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 시기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뷰티산업의 발달, 매스미디어 발달에 의한 사회적인 외모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 확산 등이 영향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오주현, 한광령(2015)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 피부·화장관리, 헤어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의 영향은 피부·화장관리, 헤어관리, 의복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친구의 영향은 의복관리와 성형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의 경우 피부·화장관리, 헤어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윤(2007)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에

대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화 변인이 남녀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화를 통해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신체수치감과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20대 남녀의 외모관리행동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를 연구한 장혜선(2014)은 외모관리행동을 메이크업관리, 패션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중관리, 네일관리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헤어관리 요인은 모든 심리적 안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헤어스타일관리를 통하여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이를 통해 외모의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여대생의 자기이미지와 미디어관여와 외모관리행동 사이 영향 관계를 연구한 김지양(2012)은 외모관리행동을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미용성형, 메이크업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그중 여대생의 활동적이고 현대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피부관리, 헤어관리, 의복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성적 이미지, 지적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미디어 관여도가 높을수록 미용성형, 피부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미숙(2017)은 미디어 노출과 관여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을 메이크업관리, 성형관리, 체중관리, 패션관리, 헤어관리, 피부관리로 구분하였다. 연구에서 미디어 관여도가 높을수록 여대생들의 메이크업, 성형, 체중, 헤어, 피부관리에 대한 수행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관여도가 노출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 보다 미디어의 내용이나 정보를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류현혜, 유태순(2007)은 노년여성의 사회적 자아의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을 더욱 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의식이 높은 집단의 노년 여성들은 낮은 집단에 비해 체중·체형관리, 피부관리, 화장행동, 헤어관리, 미용성형, 의복행동에도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헤어관리에서는 노년여성의 개인적 자아의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관계를 규명한 서은혜(2012)의 연구는 체중관리, 헤어관리를 제외한 피부관리, 성형관리, 화장관리, 의복관리에서만 심리적 효용에 유의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연구자(년도)	연구 내용	하위요인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연구	체중조절행동, 성형수술, 피부·화장행동
김선희(2003)	20대의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미용성형수술, 화장·피부관리
정지영, 신혜원(2006)	남녀 고등학생의 외모관심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의복추구혜택 연구	외모관리행동
박수진(2006)	20~30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유형 분석 연구	패션요인, 신체이미지요인, 성형요인, 헤어요인, 피부·화장품 요인
김윤(2007)	사회문화적 압력과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과 신체만족에 미치는 영향	몸매관리·체중조절, 미용성형수술, 화장, 피부관리, 헤어스타일링
류현혜,	노년 여성의 자아의식과 외모관리의 관계 연구	체중·체형관리,

유태순(2007)		피부관리, 화장행동, 헤어관리, 미용성형, 의복행동
김지양(2012)	여대생의 자기이미지와 미디어관여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피부관리, 헤어관리, 메이크업, 의복 미용성형 체중관리
김혜균(2013)	20~30대 직장인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헤어관리, 피부관리, 메이크업, 손발관리, 성형수술
이현옥, 구양숙(2014)	사회적 외모관심, 외모만족,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패션연출관리, 피부·헤어관리, 화장품사용, 체형관리
장혜선(2014)	신체적 이미지와 외모관리가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중관리, 패션관리, 메이크업 관리, 네일관리
오주현, 한광령(2015)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체중조절행위에 미치는 영향	피부·화장관리, 헤어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
고희자(2016)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외모만족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외모장식, 피부관리, 체형관리, 성형수술
이미숙(2017)	여대생의 미디어 노출과 관여도가 객체화된 신체의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메이크업관리, 성형관리, 체중관리, 패션관리, 헤어관리, 피부관리
유희(2017)	직장인의 직업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장식추구 외모관리, 호감추구 외모관리
김해선(2017)	외모관리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모관리행동
임은진, 하준호, 이계정(2017)	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다이어트행동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심리적 안정행동, 외모지향행동
이순희, 김은식, 주영주(2017)	직장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화장품 쇼핑성향 및 화장품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신체보정관리행동, 의복관리행동, 뷰티관리행동, 몸매관리행동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50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2018년 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 총 523개의 모바일, 인터넷 설문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 연령별 응답자의 비율과 불성실한 응답 설문 등을 고려하여 85개의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 분석에 438개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을 정리한 것은 <표 4>와 같다.

<표 4>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조 사 대 상	20~50대 여성
자 료 수 집	모바일, 인터넷 설문
조 사 기 간	2018년 2월 10일 ~ 2월 20일
배포 및 회수	-실시한 총 설문: 523
	-회수된 설문: 523
	-제외된 설문: 85
	-분석에 사용된 설문: 438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모바일, 인터넷 설문기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 문항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사회문화적 태도 12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외모관리행동 18문항 등으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총 문항 수는 46문항으로 명목척도가 사용되었다.

1) 사회문화적 태도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질문은 Heinberg 등(1995)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설문 문항 SATAQ를 이상선, 오경자(2003)가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는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외모의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승인하여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내면화요인 6문항(1, 2, 3, 4, 5, 6)과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인식 6문항(7, 8, 9, 10, 11, 12)으로 총 12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척도는 Rosenberg(1965)의 도구를 최미혜(2010)가 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으로는 긍정적 5문항(1, 2, 4, 6, 7) 과 부정적 5문항(3, 5, 8, 9, 10)의 총 10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척도는 김지양(2012), 조선영(2013)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외모관리의 하위요인으로는 의복관리 5문항(1, 9, 10, 12, 17), 화장관리 5문항(2, 5, 6, 13, 18), 피부관리 4문항(3, 7, 11, 14), 체형관리 4문항(4, 8, 15, 16)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총18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도구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까지의 나이,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업, 가구소득, 외모관리 비용 등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총 6개 문항으로 명목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모든 척도는 선택형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구성한 설문지는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지 구성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	척도 유형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1, 2, 3, 4, 5, 6	6	Heinberg(1995) 이상선, 오경자(2003) 안나영(2007)	5점 Likert 척도
	인식	7, 8, 9, 10, 11, 12	6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1, 2, 4, 6, 7	5	Rosenberg(1965) 최미혜(2010)	5점 Likert 척도
	부정적 자아존중감	3, 5, 8, 9, 10	5		
외모관리행동	의복관리	1, 9, 10, 12, 17	5	김지양(2012) 조선영(2013)	5점 Likert 척도
	화장관리	2, 5, 6, 13, 18	5		
	피부관리	3, 7, 11, 14	4		
	체형관리	4, 8, 15, 16	4		
인구통계학적 특성			6	연구자	
총 문항 수			46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으로는 인구통계적 변인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등을 실시하고 그 외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등이 실시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검증과,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문화적 태도 및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 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대는 20대 27.9%, 30대 26.9%, 40대 23.7%, 50대 21.5%로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의 경우 미혼 42.7%, 기혼 57.3%로 기혼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미만 포함) 25.3%, 전문대학(재) 졸업 16.2%, 대학교(재) 졸업 48.6%, 대학원(재) 졸업 9.8%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전업주부 20.1%, 학생 7.3%, 사무직 26.0%, 자영업 6.8%, 전문직 13.5%, 기타 26.3%로 기타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전업주부, 전문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 2.5%, 100~200만원 미만 15.5%, 200~300만원 미만 21.9%, 300~400만원 미만 18.5%, 400~500만원 미만 15.1%, 500만원 이상 26.5%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관리비용은 10만원 미만 34.5%, 10~30만원 미만 42.0%, 30~50만원 미만 15.5%, 50~70만원 미만 4.1%, 70~100만원 미만 1.6%, 100만원 이상 2.3%로 10~3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만원 미만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포 (N=438)

변인	항목	빈도(N)	백분율(%)
연령	20대	122	27.9
	30대	118	26.9
	40대	104	23.7
	50대	94	21.5
결혼여부	미혼	187	42.7
	기혼	251	57.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미만포함)	111	25.3
	전문대학 졸업	71	16.2
	대학교 졸업	213	48.6
	대학원 졸업	43	9.8
직업	전업주부	88	20.1
	학생	32	7.3
	사무직	114	26.0
	자영업	30	6.8
	전문직	59	13.5
	기타	115	26.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	2.5
	100～200만원 미만	68	15.5
	200～300만원 미만	96	21.9
	300～400만원 미만	81	18.5
	400～500만원 미만	66	15.1
	500만원 이상	116	26.5
외모관리 비용	10만원 미만	151	34.5
	10～30만원 미만	184	42.0
	30～50만원 미만	68	15.5
	50～70만원 미만	18	4.1
	70～100만원 미만	7	1.6
	100만원 이상	10	2.3

2.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고 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불분명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변수를 대상으로 문항이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들을 최소한의 몇 가지 요인으로 규명하고 공통차원으로 축약하여 그 요인에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방법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중요도가 낮은 변수들은 제거되며 변수들의 각 문항을 몇 가지 요인으로 축약하여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설명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Varimax는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 변수의 요인들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의 수용기준은 보통 .30이상이면 유의미하다고 설명하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은 .50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50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은 비교적 소수의 인자로 많은 변량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각 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한다. 요인부석이 적절한지 판단해주는 검정 방법으로 KMO(Kaiser-Mayer-Olkin) 검정과 Bartlett의 검정이 있다.

KMO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인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논문 통계 시 KMO값이 .90이상이면 우수한 것이고 .80이면 좋은 편 .70정도는 적당 .50이하면 변수로서 수용하기 힘든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일관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Cronbach's α값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값은 Cronbach's 계수, 알파값, 알파계수 등으로 불리며 0~1 사이의 값을 범위로 가진다. 신뢰도의 판단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분석에 활용하기 좋은 수치들로써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이하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수치라고 볼 수 있다.

Durbin-Watson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d라고 하는데 0~4까지의 값을 가지며 d값이 2에 가까우면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0에 가까우면 양의 자기상관이 있으며 4에 가까우면 음의 자기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1) 사회문화적 태도

본 연구에서는 20~50대 여성의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타당성 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12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제외한 8문항이 추출되었고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9.7%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33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812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분류하였다.

요인 1은 내면화에 관한 내용이며, '나는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처럼 보였으면 한다', '나는 패션잡지 속의 여성들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외모를 패션잡지에 나오는 날씬하고 매력적인 모델들과 비교한다', '나는 나의 신체를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비교한다',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외모는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 들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고유값은 3.372이고 전체변량은 42.148%였다.

요인 2는 인식에 관한 내용이며,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관리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신체 매력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값은 2.211이고 전체변량은 27.638%였다.

이 두 개의 요인 부하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또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면화와 인식은 이상선, 오경자(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7>은 사회문화적 태도 질문지의 요인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내면화	인식	
나는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처럼 보였으면 한다.	.843	.138	.730
나는 패션잡지 속의 여성들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831	.115	.704
나는 나의 외모를 패션잡지에 나오는 날씬하고 매력적인 모델들과 비교한다.	.829	.118	.701
나는 나의 신체를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비교한다.	.802	.147	.665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외모는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 들이다.	.771	.015	.594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관리는 중요하다.	.042	.851	.726
우리 사회에서 신체 매력성은 매우 중요하다.	.107	.848	.730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179	.837	.733
고유값	3.372	2.211	
분산(%)	42.148	27.638	
누적(%)	42.148	69.786	
신뢰도(Cronbach's α)	.880	.812	
전체신뢰도	.833		
KMO와 Bartlett 검정	KMO=.835, x^2=1593.854 p<.000		

2) 자아존중감

20~50대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10문항 중 4개 문항을 제외한 6개 문항을 최종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사용하였고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결과 전체 설명력은 73.23%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25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769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분류하였다.

요인 1(38.4%)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관한 내용이며 '나는 종종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유값은 2.309이고, 전체변량은 38.478% 였다.

요인 2(34.7%)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관한 내용이며 '나는 장점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 한다', '나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해낼 수 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유값은 2.085이고, 전체변량은 34.756% 였다.

이 두 개의 요인 적재 값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또한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최미혜(2010)의 연구에서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표 8>은 자아존중감 질문지의 요인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긍정적	부정적	
나는 종종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901	.147	.834
나는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853	.215	.774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803	.280	.724
나는 장점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243	.822	.735
나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4	.807	.689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해낼 수 있다.	.161	.782	.638
고유값	2.309	2.085	
분산(%)	38.478	34.756	
누적(%)	38.478	73.234	
신뢰도(Cronbach's α)	.854	.769	
전체신뢰도	.825		
KMO와 Bartlett 검정	KMO=.793, x^2=1068.155 p<.000		

3) 외모관리행동

20~50대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18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4문항이 삭제되었다.

그 결과 전체 설명력은 63.14%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48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분류하였다.

요인 1은 의복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마음에 드는 옷은 반드시 구입하는 편이다', '될 수 있는 한 신발과 가방을 옷에 맞추려고 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의상과 패션소품을 잘 활용 한다', '유행하는 옷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최신 유행 패턴이나

색상의 옷을 자주 구입하는 편이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값은 2.896이고 전체변량은 20.686%였다.

요인 2는 화장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내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화장 스타일을 찾기 위해 노력 한다', '외출을 할 때엔 화장(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을 하는 편이다',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다', '외모관리를 위해 화장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값은 2.124이고 전체변량은 15.173%였다.

요인 3은 피부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피부관리를 위해 미백 및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즐겨 바른다', '피부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값은 1.943이고 전체변량은 13.880%였다.

요인 4는 체중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체중조절을 위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체형보정을 위해 기능성 속옷(올인원, 코르셋 등)을 입은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값은 1.877이고 전체변량은 13.404%였다.

이 네 개의 요인 적재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복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는 김지양(2012)의 연구결과 중 헤어관리와,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표 9>는 외모관리행동요인 질문지의 요인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외모관리행동요인의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의복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마음에 드는 옷은 반드시 구입하는 편이다.	.721	.003	.259	.018	.586
될 수 있는 한 신발과 가방을 옷에 맞추려고 하는 편이다.	.699	.295	.040	-.091	.585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의상과 패션소품을 잘 활용한다.	.695	.308	.119	.157	.617
유행하는 옷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673	.205	.283	.188	.610
최신 유행 패턴이나 색상의 옷을 자주 구입하는 편이다.	.599	.186	.443	.164	.616
내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화장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344	.674	-.156	.283	.677
외출할때엔 화장(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새도우 등)을 하는 편이다.	.022	.672	.414	-.102	.635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다.	.274	.671	.107	.065	.541
외모관리를 위해 화장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380	.598	.446	.092	.709
피부관리를 위해 미백 및,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즐겨 바른다.	.215	.082	.837	.142	.773
피부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332	.180	.643	.076	.561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021	-.028	.075	.865	.755
체중조절을 위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308	.008	-.004	.722	.616
체형보정을 위해 기능성 속옷(올인원, 코르셋 등)을 입은 적이 있다.	-.059	.335	.244	.619	.558
고유값	2.896	2.124	1.943	1.877	
분산(%)	20.686	15.173	13.880	13.404	
누적(%)	20.686	35.858	49.739	63.143	
신뢰도(Cronbach's α)	.813	.737	.692	.650	
전체신뢰도	.848				
KMO와 Bartlett 검정	KMO=.880, x^2=2047.906 p<.000				

3.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요인인 내면화와 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 요인들과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반면 자아존중감 요인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외모관리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인식이 자아존중감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황윤정(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과 내면화 모두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하고 내면화 할수록 의복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박광희(2012), 이민지 등(201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다음 <표 10>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0>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내면화	인식	부정적	긍정적	의복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내면화	2.75	0.90	1							
인식	3.96	0.67	.257**	1						
부정적	3.64	0.94	-.208**	-.125**	1					
긍정적	3.84	0.64	-.100*	.051	.467**	1				
의복관리	3.05	0.77	.309**	.166**	.015	.090	1			
화장관리	3.41	0.70	.226**	.197**	.054	.162**	.613**	1		
피부관리	3.04	0.92	.169**	.117*	.087	.096*	.544**	.484**	1	
체중관리	2.84	0.98	.277**	.153**	-.039	.009	.277**	.277**	.260**	1

*$p<.05$, **$p<.01$

4.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고,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4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11.194, p<.001), 독립변인인 내면화(β=-.189, p<.001)에서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회귀

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1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F=3.585, p<.05). 다만, 독립변인인 내면화(β=-.121, p<.05) 에서만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내면화 요인이 부적 상관관계라고 설명한 이상선, 오경자(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문화적태도)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자아존중감	부정적	(상수)	4.612	.272		16.943	.000
		내면화	-.199	.051	-.189	-3.899	.000***
		인식	-.107	.068	-.077	-1.590	.113
		R=.221 R^2=.049 F=11.194*** Dubin-Watson 1.713					
	긍정적	(상수)	3.769	.188		20.018	.000
		내면화	-.087	.035	-.121	-2.457	.014*
		인식	.078	.047	.082	1.659	.098
		R=.127 R^2=.016 F=3.585* Dubin-Watson 2.055					

*p<.05, ***p<.001

2)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관리 요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103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25.104, p<.001), 독립변인인 내면화(β=.285, p<.001)와 인식(β=.093, p<.05) 모두 유의수준에서 의복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관리 요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7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16.783, p<.001), 독립변인인 내면화(β=.187, p<.001)와 인식(β=.149, p<.01) 모두 유의수준에서 화장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 요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회귀식의 유의성은 .001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3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7.719, p<.01), 독립변인인 내면화(β=.149, p<.01)에서만 피부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8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19.848, p<.001), 독립변인인 내면화(β=.254, p<.001)에서만 체중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의 의복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한 조선명,(2000), 김선희(200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외모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문화적태도)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외모관리행동	의복관리	(상수)	1.955	.216		9.038	.000
		내면화	.246	.040	.285	6.068	.000***
		인식	.106	.054	.093	1.978	.049*
		R=.322	R^2=.103	*F=25.104***	Dubin-Watson	2.065	
	화장관리	(상수)	2.389	.201		11.894	.000
		내면화	.147	.038	.187	3.922	.000***
		인식	.155	.050	.149	3.115	.002**
		R=.268	R^2=.072	*F=16.783***	Dubin-Watson	1.855	
	피부관리	(상수)	2.190	.269		8.156	.000
		내면화	.153	.050	.149	3.053	.002**
		인식	.107	.067	.078	1.607	.109
		R=.185	R^2=.034	*F=7.719***	Dubin-Watson	1.838	
	체중관리	(상수)	1.576	.276		5.704	.000
		내면화	.277	.052	.254	5.352	.000***
		인식	.126	.069	.087	1.840	.066
		R=.289	R^2=.084	*F=19.848***	Dubin-Watson	2.000	

*$p<.05$, **$p<.01$, ***$p<.001$

3)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관리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140으로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00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의 수치는 2에 가까운 2.120으로 확인되어 독립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긍정적 .106, 부정적 -.034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요인이 의복관리 요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관리 요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7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16.783, p<.001), 독립변인인 내면화(β=.187, p<.001)와 인식(β=.149, p<.01) 모두 유의수준에서 화장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관리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003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2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영해 대한 분산 분석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5.971, p<.01), 독립변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β=.175, p<.01)에서만 화장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080으로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01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의 수치는 2에 가까운 1.833으로 확인되어 독립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긍정적 .071, 부정적 .054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요인이 피부관리 요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581로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00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의 수치는 2에 가

까운 2.067로 확인되어 독립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긍정적 .035, 부정적 -.056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요인이 체중관리 요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관리 요인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류현혜, 유태순(2007), 강평미(2016)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최정숙(1996)의 연구에 따르면 TV나 잡지 등 미디어를 관심 있게 접하는 경우 유행화장에 대한 관심과 화장품 구매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윤종희, 진기남(2006) 역시 미디어와 화장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잡지 매체 이용도가 높은 경우 화장행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최신 유행의 화장법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증가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외모관리행동까지 영향을 미쳐 화장관리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화장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자아존중감)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외모관리행동	의복관리	(상수)	2.665	.228		11.695	.000
		긍정적	.127	.065	.106	1.961	.050
		부정적	-.028	.044	-.034	-.637	.524
		R=.095 R^2=.009 *F=1.973* Dubin-Watson 2.120					
	화장관리	(상수)	2.750	.206		13.347	.000
		긍정적	.192	.059	.175	3.265	.001**
		부정적	-.021	.040	-.028	-.526	.599
		R=.163 R^2=.027 *F=5.971*** Dubin-Watson 1.902					
	피부관리	(상수)	2.452	.272		9.007	.000
		긍정적	.103	.078	.071	1.322	.187
		부정적	.053	.053	.054	.995	.320
		R=.107 R^2=.012 *F=2.538* Dubin-Watson 1.833					
	체중관리	(상수)	2.843	.289		9.843	.000
		긍정적	.053	.082	.035	.645	.520
		부정적	-.057	.056	-.056	-1.027	.305
		R=.050 R^2=.002 *F=.544* Dubin-Watson 2.067					

**$p<.01$

5.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분석

매개효과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 하나가 위치한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독립변인이 직접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즉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모형 1과 모형 2의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을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모형 1과 모형 2의 β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내면화 요인의 경우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모형 1=.285 < 모형 2=.299'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매개변인은 매개효과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β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의복관리 요인의 경우 '부정적' 매개변인은 매개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4>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의복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문화적태도)	비표준화계수 B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의복관리	1	(상수)	1.955	.216		9.038	.000
		내면화	.246	.040	.285	6.068	.000***
		인식	.106	.054	.093	1.978	.049*
			R=.322	R^2=.103	F=25.104***	Dubin-Watson	2.065
	2	(상수)	1.431	.298		4.803	.000
		내면화	.258	.040	.299	6.361	.000***
		인식	.095	.054	.083	1.783	.075
		긍정적	.139	.055	.115	2.539	.011*
			R=.341	R^2=.117	F=19.094***	Dubin-Watson	2.061
	3	(상수)	1.613	.278		5.807	.000
		내면화	.260	.041	.302	6.343	.000***
		인식	.114	.054	.100	2.127	.034*
		부정적	.074	.038	.091	1.952	.052
			R=.334	R^2=.111	F=18.115***	Dubin-Watson	2.061

*$p<.05$, ***$p<.001$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 1과 모형 2의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을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모형 1과 모형 2의 β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내면화 요인의 경우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모형 1=.187 < 모형 2=.209'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 요인의 경우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모형 1=.149 > 모형 2=.135'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긍정적' 매개변인은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β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인식 요인의 경우 '부정적' 매개변인은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5>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화장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문화적태도)	비표준화계수 B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화장관리	1	(상수)	2.389	.201		11.894	.000
		내면화	.147	.038	.187	3.922	.000***
		인식	.155	.050	.149	3.115	.002**
			R=.268	R^2=.072	F=16.783***	Dubin-Watson 1.855	
	2	(상수)	1.662	.274		6.064	.000
		내면화	.164	.037	.209	4.404	.000***
		인식	.140	.049	.135	2.850	.005**
		긍정적	.193	.050	.176	3.829	.000***
			R=.319	R^2=.102	F=18.427***	Dubin-Watson 1.846	
	3	(상수)	1.986	.257		7.720	.000
		내면화	.165	.038	.210	4.334	.000***
		인식	.165	.050	.158	3.313	.001**
		부정적	.087	.035	.117	2.484	.013*
			R=.291	R^2=.085	F=13.378***	Dubin-Watson 1.866	

*$p<.05$, **$p<.01$, ***$p<.001$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 1과 모형 2의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종

속변인을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모형 1과 모형 2의 β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내면화 요인의 경우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모형 1=.149 < 모형 2=.162'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매개변인은 매개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β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피부관리 요인의 경우 '부정적' 매개변인은 매개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6>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피부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문화적 태도)	비표준화계수 B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피부관리	1	(상수)	2.190	.269		8.156	.000
		내면화	.153	.050	.149	3.053	.002**
		인식	.107	.067	.078	1.607	.109
		R=.185	R^2=.034	F=7.719**	Dubin-Watson 1.838		
	2	(상수)	1.598	.370		4.316	.000
		내면화	.167	.050	.162	3.317	.001**
		인식	.095	.067	.069	1.427	.154
		긍정적	.157	.068	.109	2.307	.022*
		R=.214	R^2=.046	F=8.971***	Dubin-Watson 1.799		
	3	(상수)	1.583	.343		4.612	.000
		내면화	.179	.051	.174	3.539	.000***
		인식	.121	.066	.089	1.828	.068
		부정적	.132	.047	.134	2.803	.005**
		R=.227	R^2=.051	F=7.847***	Dubin-Watson 1.807		

*$p<.05$, **$p<0.01$, ***$p<.001$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 1과 모형 2의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종

속변인을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모형 1과 모형 2의 β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내면화 요인의 경우 독립변인의 β값을 비교하면 '모형 1=.254 < 모형 2=.258'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매개변인은 매개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β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체중관리 요인의 경우 '부정적' 매개변인은 매개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7>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체중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문화적태도)	비표준화계수 B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체중관리	1	(상수)	1.576	.276		5.704	.000
		내면화	.277	.052	.254	5.352	.000***
		인식	.126	.069	.087	1.840	.066
			R=.289	R^2=.084	$F=19.848^{***}$	Dubin-Watson 2.000	
	2	(상수)	1.402	.383		3.658	.000
		내면화	.281	.052	.258	5.388	.000***
		인식	.123	.069	.085	1.781	.076
		긍정적	.046	.070	.030	.656	.512
			R=.291	R^2=.085	$F=13.358^{***}$	Dubin-Watson 1.999	
	3	(상수)	1.452	.356		4.077	.000
		내면화	.282	.053	.259	5.357	.000***
		인식	.129	.069	.089	1.875	.061
		부정적	.027	.049	.026	.550	.583
			R=.290	R^2=.084	$F=13.311^{***}$	Dubin-Watson 1.996	

$^{*}p<.05$, $^{***}p<.001$

따라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50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 설문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을 통계 분석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과의 고찰을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수용하여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내면화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식 두 가지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두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은 의복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의 네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의 이상적 기준의 내면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데 이러한 이상적 기준은 실제로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에 따라 내면화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 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면 이상적 외모기준과 자

신의 외모를 비교를 하고 외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외모관리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관리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TV나 잡지 등 미디어 이용도가 높은 경우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외모관리행동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20~50대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

참고문헌

강영숙, 박현정(2009).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 한국미용학회지. 15(1). pp.363～373.

강평미(2016). 사회성,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선형(2015). 성인의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희자(2016).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호(2015). 이미지메이킹의 이론과 실제. 서울: 높은오름.

김나미, 정성지, 김동건(2015). 중년소비자의 주관적 연령 차이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 및 의복추구혜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4) pp. 101～115.

김상인(2000). 상담심리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샘가

김선희(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p.99～108.

김성남, 이경숙(2007). 20～40대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패션비즈니스. 11(4). pp.29～41.

김수현(2013)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여성의 미용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윤(2007).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양(2012). 여대생의 자기이미지와 미디어관여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환(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김해선(2013).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여성의 미용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해선(2017). 외모관리행동과 외모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균(2013).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란(2006).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특성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현혜, 유태순(2007). 노년 여성의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한국복식학회지. 57(9). pp.97~109.

문혜경, 유태순(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3(4), pp.108~110.

박광희(2012). 인지연령,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간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6(7). pp.756~766.

박수진(2006). 남성의 패션, 헤어스타일, 피부, 신체이미지에 관한 유형 분석.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수연(2014). 패션/뷰티 TV미디어 이용이 미디어태도 및 외모관리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신뢰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설현진(201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은영(2009). 얼굴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긍정적 사고, 얼굴 이미지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미나(2016). 20~40대 남성의 외모관리 기대가치에 따른 의복추구혜택과 영향요인.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희진(2011). 자아존중감, 신체매력지각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유나(2016). 무용 예술 전공자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및 관리 행동이 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주현, 한광령(2015).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이 체중조절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현숙(2015). 여대생의 신체 불만족과 다이어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인, 미디어, 사회규범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7(3). pp.65~97.

유태순(201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7(3). pp.260~269.

유 희(2017). 직장인의 직업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 한국복식학회지. 67(2). pp.17~35.

윤종희, 진기남(2006). 미디어 노출이 화장과 헤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3). pp.336~342.

이금희(2007).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지각된 어머니양육태도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숙(201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남성 소비자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4). pp.63~77.

이미숙(2017). 여대생의 미디어 노출과 관여도가 객체화된 신체의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9(4). pp.59~73

이민지, 정성지, 안미선(201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레스, 얼굴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9(3). pp.323~336.

이상선, 오경자(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4). p.913~926.

이수경(2003). 사춘기 여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 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순희, 김은실, 주영주(2017). 직장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화장품 쇼핑성향 및 화장품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4). pp.629~641.

이유종(2010).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매력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미(2017). 중년남성의 미용건강관리행동이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영, 박혜정(2013). 자아존중감, 외모비교, 미디어 관심이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 태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3). pp.1~17.

이현옥, 구양숙(2014).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2). pp.271~277.

이현옥, 구양숙(2015). 남성의 대인관계성향, 외모관심, 외모관리행동의 관련성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5(7).118~128.

이현옥, 구양숙(2017). 대학생의 외모유용성과 외모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9(1). pp.30~39.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양윤(2002). 현대의상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임은진, 하준호, 이계정(2017). 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다이어트행동 및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1). pp.501~511.

임효정(2014).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메이크업 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미숙(2010). 여성의 외모관리와 체형관리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선(2014).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종국(2008). 외모관리서비스 이용 행동과 만족도.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봉현(2009).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영, 신혜원(2006).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 관리행동 및 의복추구혜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pp.13~23.

정태연(1999). 심리학 용어 사전. 서울: 끌리오.

조선영(2014). 성인여성의 생활연령과 지각연령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미혜(2010). 남성의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정숙(1996). 화장품 산업의 소비자 욕구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주(2013).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정(2001).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

적 고찰.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정화(2016). 중년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윤정(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윤정, 유태순(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얼굴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식학회지. 58(6). pp.85~95.

황윤정, 유태순(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체중 및 의복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11). pp.1923~1932.

홍금희(2008). 남자 대학생의 대중매체노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2(7). pp.1149~1159.

Heinberg, Thompson, Stomer(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ri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1), pp.81~89.

<인터넷 자료>

한국갤럽.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56.

뉴스와이어. 남녀 93% “아름다운 외모는 사회생활에 긍정적”. 2014. 9. 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4317.

다음 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601793&supid=kku010464767.

네이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8343&cid=40942&categoryId=31531.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8336500.

ABSTRACT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Self 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Hee Jung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Department of Convergence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influence of the media has standardized the standard of beauty, making modern people constantly compare their bodies with those of others. They invest in fashion, beauty, and exercise to meet the standards of beauty that society demands. Also, in modern society, the media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value of attractive looks regardless of age or sex(Soo-yeon Park,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 esteem of women in their 20s to 50s.

For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women aged

20s to 50s, from February 10 to February 20, 2018. 438 questionnaire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To analyze the data, a SPSS 22.0 was used an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were classified into two factors,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re garment management, makeup management, skin management, body line management - which consist of four factors. Self esteems are positive self esteem and negative self esteem - which consist of two factors.

The seco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self esteems. In other words, wh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t appears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self esteem.

The thir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 fourth, Self esteem was identified to influence on makeup management among subordinate variable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ut not identified to influence on garment management, skin management, body line management.

The fifth,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elf 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has shown that self respect can play a part in influenci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research has shown that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of women in their 20s to 50s affects and is partly a guide to self-respec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us, a sociocultural attitude makes women in modern society aware of the ideal standards and importance of appearance and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ir self respec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connection with this research, Hyun-sook Oh (2015), who studied the effect of the media, the public, and social norms among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women's appearance, found that while in the case of teenagers, interaction with peers or parents has a greater impact on body satisfaction than media, for women more than 20s, media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is study, it makes validated specifically the effects, connecting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women's self 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their 20s to 50s. However this results suggest those effects could involve in development of self esteem and appearance and higher quality of happy index by country.

부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하신 소중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 1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어 개인에 대한 사항이 철저히 비밀 보장 됩니다.

각 설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느끼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메이크업·특수분장학과

연구자: 정소희

(netg2@naver.com)

지도교수: 김경희 교수

Ⅰ. 다음은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외모는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패션잡지 속의 여성들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신체를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날씬한 여성의 사진들은 나도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처럼 보였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외모를 패션잡지에 나오는 날씬하고 매력적인 모델들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사회에서 신체 매력성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관리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람들은 내가 날씬할수록 더 보기 좋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람들은 내가 날씬할수록 옷맵시가 더 좋다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장점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종종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될 수 있는 한 신발과 가방을 옷에 맞추려고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화장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피부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화장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외출을 할 때엔 화장(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 및 세안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체중조절을 위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의상과 패션소품을 잘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신 유행 패턴이나 색상의 옷을 자주 구입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피부관리를 위해 미백 및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자주 바른다.	①	②	③	④	⑤
12	마음에 드는 옷은 반드시 구입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외모관리를 위해 화장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피부관리를 위해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 다닌 적이 있거나 다녀볼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체형보정을 위해 기능성 속옷(올인원, 코르셋 등)을 입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 (헬스, 에어로빅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유행하는 옷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2. 귀하의 결혼 하셨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재) 졸업 ③ 대학교(재) 졸업 ④ 대학원(재) 졸업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업주부 ② 학생 ③ 사무직 ④ 자영업 ⑤ 전문직 ⑥ 기타

5.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6. 월 평균 자신의 외모관리비용은 얼마입니까?

① 10만원 미만 ② 10-30만원 미만 ③ 30-50만원 미만

④ 50-70만원 미만 ⑤ 70~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